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I) : 인구구조와 인구이동*

최은영** · 구동회*** · 박영실****

Patterns of Migration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I) : Population Structure and Migration*

Choi, Eunyoung** · Koo, Donghoe*** · Park, Youngshil****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구조, 부산 대도시권 내부의 인구이동, 부산 대도시권과 다른 지역 사이의 인구이동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대비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 및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 생산 연령층인 25~39세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서울 대도시권에 비해 부산 대도시권은 상대적으로 시도내 인구이동 비율이 높고, 시도간 인구이동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기능적 연계에 의한 대도시권의 통합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부산에서 서울 대도시권으로의 진출 초과가 갈수록 증가하여 부산의 진출 초과에서 수도권 지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주요어 : 인구이동, 인구구조, 지역내 인구이동, 지역간 인구이동, 부산 대도시권

Abstract : To grasp the mig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Busan metropolitan area(BMA),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population and households, and the migration at the intra-regional and inter-regional scale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population and households of the BMA to the whole country has continuously decreased, especially those 25 to 39 years of age greatly decreased. Second, the ratio of intra-regional migration is relatively high, and the ratio of inter-regional migration is relatively low in the BMA compared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us, Busan seems to be less integrated with the urban fringe. Third, the out-migration toward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Busan has increased, so that Seoul metropolitan area becomes to have more considerable influence upon the population decrease in Busan.

Key Words : migration, population structure, intra-regional migration, inter-regional migration, Busan metropolitan area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대도시 인구의 절대 감소·대도시 주변 지역 인구의 증가와 함께 생활권이 통합된 거대 대도시권의 형성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인구 현상 변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구 현상은 서울과 부산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지역 모두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인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도시의 절대 인구 감소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과잉도시화론과 도시

쇠퇴론으로 구분된다. 과잉도시화론에서는 인구집중으로 말미암아 주택·환경·교통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므로 도시의 적정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도시쇠퇴론에서는 인구 감소를 경제적 쇠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본다. 현재 부산의 인구 감소 현상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이 경합 중인데, 부산 인구 현상에 대한 정책 방향의 설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이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해주는지에 대한 논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산의 인구 감소를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도시(whirlpool city)로 빨려 들어가는 측면과 부산 대도시권 자체가 성장해가는 도시의 발전 단계에서

* 이 논문은 부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분석(2008)”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Deputy Director,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cey461@nso.go.kr)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donghoe@pusan.ac.kr)

**** 통계청 통계개발원 주무관(Researcher,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yspark@nso.go.kr)

나타나는 부산의 교외화라는 측면(구동희, 2007)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된다.

그동안 논증되기보다는 가정되어 왔던 이러한 질문에 부분적으로라도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부산의 인구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시계열적으로 부산의 인구 현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부산과 서울의 절대 인구 감소가 대도시권에 미치는 원인·과정·결과는 유사한가?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구 현상의 과정인 동시에 원인이면서 미래의 인구 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인구이동은 다른 동력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여러 연구에서 강조된 바 있다(Schnell and Monmonier, 1983; Findlay et al., 2001; Stockdale, 2006). 인구 증감이 국가 수준에서는 출생과 사망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지역 수준에서는 인구이동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Champion, 1992), 지역 인구 정책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 증감은 목적지(area of destination)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반면, 기원지(area of origin)의 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두 지역의 인구에 동시에 변화를 일으켜 인구 분포의 지역간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이희연, 2003).

부산의 인구 감소 역시 주로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시·공간적으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한데, 장기간의 시계열 분석과 함께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하는 부산 대도시권은 물론 우리나라의 인구 현상에 있어서 수도권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인구 현상 변화와 관련해서 서울 대도시권에 대해서는 양재섭·김상일(2007)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부산 대도시권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구조, 부산 대도시권 내부의 인구이동, 부산 대도시

권과 다른 지역 사이의 인구이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계열적으로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둘째, 부산 대도시권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이동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공간적 패턴은 어떠한가? 셋째, 부산 대도시권과 다른 지역 사이의 인구이동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2) 선행연구 검토

부산의 인구 현상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부산 내부의 인구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관되게 부산의 도심 인구가 줄어들고 주변지역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서의택·김성일, 1998; 남광우 외, 2001; 윤철현·박봉진, 2003; 김홍관, 2006). 서의택·김성일(1998)은 1975년부터 부산 도심의 인구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교외화 현상이 나타났고, 1985년부터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부산의 인구가 점점 외곽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남광우 외(2001) 또한 이와 유사한 시기의 인구자료를 분석하여 1980년에 교외화단계의 전기에, 1990년에는 교외화단계의 후기에 접어들었음을 지적하였다. 윤철현·박봉진(2003)은 부산의 인구분포 패턴이 중심시가지에서 외곽지역으로 그리고 외곽에서 주변지역으로 단계적인 과정을 밟으면서 재편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곧이어 주변지역의 성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산의 공간구조 변천에 대한 김홍관(2006)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부산 내부의 인구변화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이에 대한 원인과 정책적인 대안 연구는 미흡하다. 인구이동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시도한 연구로는 옥양련·류영달(1994)이 있다. 설문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연구에 따르면 쾌적한 환경과 더 나은 교육여건이 중요한 이동의 요인이었다. 이동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나이가 젊고,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그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주변 지역의 성장을 경제적인 요인과 연관시킨 분석이 몇 편의 연구에서 시도되었다. 권기철

(2006)과 김경희(2007)는 부산 인구 감소의 주요한 원인을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부산의 경제활동인구가 경남지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김성주·이선영(2006)은 김해와 양산이 부산지역과 밀접한 연계가 있으므로 이들 지역의 경제활동 뿐 아니라 통근·통학인구의 이동, 교통량, 도시간 분업체계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하며, 향후 이 지역들과 연계하여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산의 인구이동 연구는 부산 대도시권 인구 현상에 대한 수도권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구동희(2007)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구동희는 부산의 인구 감소가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부산의 교외화와 함께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의한 결과임을 밝혔다.

인구이동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김경수(2000a)와 임호 외(2006)가 있다. 김경수(2000a)는 부산시의 총인구규모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핵가족화의 진전과 노후주택의 증가,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주택소비행태의 변화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택공급 물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외화의 진전으로 인해 광역주택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임호 외(2006)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부산시의 인구정책은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께 역외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책위원회의 설치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산의 인구이동에 대한 문헌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부산의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는 부산 내부에서의 인구이동 뿐만 아니라 대도시권 차원에서의 인구이동을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부산 내부의 인구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분석 대상이 되는 시기 또한 1960~7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의 현상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수도권권을 포함하는 최근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자료 및 연구 방법

인구이동 현상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구이동에 대한 자료의 획득과 관계되는데(Knox, 1994; 이희연, 2003), 기존 연구의 한계는 우선 과거에 적절한 공간 단위로 제공되는 인구이동 자료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된 것이다. 1995년 이전에는 광역시도라는 큰 공간 단위로 자료가 발표되었으나, 최근 시군구 혹은 읍면동과 같은 소지역 통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에 발맞추어 통계청에서는 지속적인 통계 개선 작업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1995년부터 통계청은 원자료(raw data) 형태로 시군구 단위의 인구이동 자료를 이동 인구의 연령 특성과 함께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읍면동 단위의 인구이동 자료를 개별 가구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¹⁾ 이에 따라 공간 단위가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유연하게 데이터를 가공·처리하여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인구이동통계와 같이 지역을 그 기본 단위로 하는 대용량의 복잡한 자료를 가지고 인구이동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인구이동의 흐름(flow)은 기원지, 목적지, 방향, 인구이동량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현상이므로 인구이동의 원인·현상·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20세기 중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는 인구이동 분석에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GIS에 기반을 둔 공간 분석을 통하여 작은 스케일의 공간 단위로 구축된 대용량 자료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인구이동통계(1996~2007년), 인구주택총조사(1985~2005년) 등이다. GIS 분석에는 ArcGIS 9.2를, 데이터베이스 관리에는 Microsoft Access를 사용하였다.

2.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구조

1) 인구와 가구의 증감

1985~2005년 동안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는 1985

년 703만 명에서 2005년 763만 명으로 8%가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의 인구 증가율 16.9%보다 낮으며, 43.9%의 증가율을 보인 서울 대도시권과 대비된다(표 1). 이에 따라 전국 대비 서울 대도시권의 인구 비율이 1985년 39.1%에서 1995년 45.3%, 2005년 4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달리, 전국 대비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 비율은 1985년 17.4%, 1995년 17.2%, 2005년 16.1%로 조금씩 감소하

고 있다. 부산은 1995년 381만 명을 정점으로, 서울은 1990년 1,061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1985~2005년 20년간 부산의 인구는 0.2% 증가하였으며, 서울의 인구는 1.9% 증가하였다. 부산 대도시권에서 부산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50.0%에서 2005년 46.2%로 다소 감소한 반면 서울 대도시권에서 서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60.9%, 2005년 43.1%로

표 1. 부산 대도시권과 서울 대도시권의 인구 변화(1985~2005)

(단위: 명, %)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5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부산	3,514,798	50.0	3,798,113	50.8	3,814,325	49.8	3,662,884	47.8	3,523,582	46.2
울산	-	-	-	-	-	-	1,014,428	13.3	1,049,177	13.8
경남	3,516,660	50.0	3,672,396	49.2	3,845,622	50.2	2,978,502	38.9	3,056,356	40.1
부산 대도시권(A)	7,031,458	100.0	7,470,509	100.0	7,659,947	100.0	7,655,814	100.0	7,629,115	100.0
서울	9,639,110	60.9	10,612,577	57.1	10,231,217	50.7	9,895,217	46.3	9,820,171	43.1
인천	1,386,911	8.8	1,817,919	9.8	2,308,188	11.4	2,475,139	11.6	2,531,280	11.1
경기	4,794,135	30.3	6,155,632	33.1	7,649,741	37.9	8,984,134	42.1	10,415,399	45.7
서울 대도시권(B)	15,820,156	100.0	18,586,128	100.0	20,189,146	100.0	21,354,490	100.0	22,766,850	100.0
전국(C)	40,448,486	100.0	43,410,899	100.0	44,608,726	100.0	46,136,101	100.0	47,278,951	100.0
A/C	-	17.4	-	17.2	-	17.2	-	16.6	-	16.1
B/C	-	39.1	-	42.8	-	45.3	-	46.3	-	48.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주: 모든 통계는 해당년도 행정구역 경계 기준임.

표 2. 부산 대도시권의 시군구별 인구 증감(1995~2005)

(단위: %)

구 분	감소 지역				증가 지역			
	1995~2000		2000~2005		1995~2000		2000~2005	
부산	동구	-20.1	동구	-15.0	해운대구	31.3	북구	10.2
	강서구	-19.5	강서구	-14.7	북구	7.3	기장군	7.0
	서구	-15.4	영도구	-11.3	-	-	남구	1.3
	영도구	-13.8	서구	-10.1	-	-	-	-
	연제구	-12.3	동래구	-9.5	-	-	-	-
울산	-	-	울산 동구	-3.1	울산시	4.1	울산 북구	19.2
경남	의령군	-17.0	산청군	-15.2	김해시	29.4	김해시	29.6
	산청군	-12.2	하동군	-12.2	양산시	17.2	진해시	17.3
	합천군	-12.0	합천군	-12.2	거제시	13.4	거제시	15.6
	남해군	-11.8	의령군	-12.1	창원시	7.3	양산시	12.9
	창녕군	-8.6	남해군	-12.0	진주시	2.9	-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가동(I): 인구구조와 인구가동

크게 감소하였다.

1995~2005년 사이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 감소 및 증가 지역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산 동구·강서구·서구·영도구는 인구가 큰 규모로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 북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의령군·산청군·합천군·남해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며 김해시·양산시·거제시는 인구 증가 지역이다.

부산 대도시권의 가구수는 1985년 169만 가구에서 2005년 258만 가구로 52.7% 증가하였다(표 3). 그러나 같은 기간에 전국의 가구 증가율은 66.0%에 달해 전국에서 차지하는 부산 대도시권의 가구 비율은 17.7%에서 16.2%로 약간 감소하였다. 부산의 가구는 1985년 84만 가구에서 2005년 119만 가구로 41.4%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 연령구조

부산 대도시권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를 살펴보면(표 4), 15~24세 인구는 1995년 140만 명에서 2005년 108만 명으로 22.9%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인구는 42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64.8% 증가하였다. 그 결과, 35~44세를 기준으로 3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청년층 인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45세 이상의 장년 및 고령층 인구 비중은 증가하였

다. 이러한 변화 경향은 부산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부산의 15~24세 인구는 1995년 75만 명에서 2005년 54만 명으로 28.1%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인구는 17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76.3% 증가하였다. 특히 0~14세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1995년 84만 명에서 2005년 58만 명으로 30.4%가 감소하였다. 유소년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젊은 연령층의 인구 감소 현상은 35~44세를 기점으로 달라지고 있다. 0~14세 인구 비율은 울산과 경남이 각각 22.1%, 20.0%, 부산이 16.6%로 이 연령대 비율이 부산 대도시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 전체와 서울·부산의 연령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85년과 2005년의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인구성장률이 둔화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인구 피라미드의 유형이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2005년의 인구 피라미드는 항아리와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는 전국의 인구 피라미드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20, 30대 인구 비율이 다소 높다. 반면에 부산의 인구 피라미드는 25~39세의 인구 비율이 전국과 서울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부산의 인구 피라미드에서 25~39세 인구 비율이 낮은 것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표 3. 부산 대도시권의 가구수 (1985~2005)

(단위: 가구, %)

구분		1985	1990	1995	2000	2005	증감률	
							85~2005	95~2005
부산	가구수(A)	838,929	993,375	1,079,417	1,120,186	1,186,378	41.4	9.9
	구성비(A/D)	49.6	50.0	48.6	47.1	46.0		
울산	가구수(B)	-	-	-	306,714	339,095	-	-
	구성비(B/D)	-	-	-	12.9	13.1		
경남	가구수(C)	851,128	991,695	1,141,523	951,393	1,056,007	-	-
	구성비(C/D)	50.4	50.0	51.4	40.0	40.9		
부산 대도시권	가구수(D)	1,690,057	1,985,070	2,220,940	2,378,293	2,581,480	52.7	16.2
	구성비(D/E)	17.7	17.5	17.1	16.6	16.2		
전국	가구수(E)	9,571,361	11,354,540	12,958,181	14,311,807	15,887,128	66.0	22.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주1: 1997년에 경상남도에서 울산광역시가 분리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단순시계열 비교는 의미 없음.

주2: 모든 통계는 해당년도 행정구역 경계 기준임.

표 4. 부산 대도시권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1995~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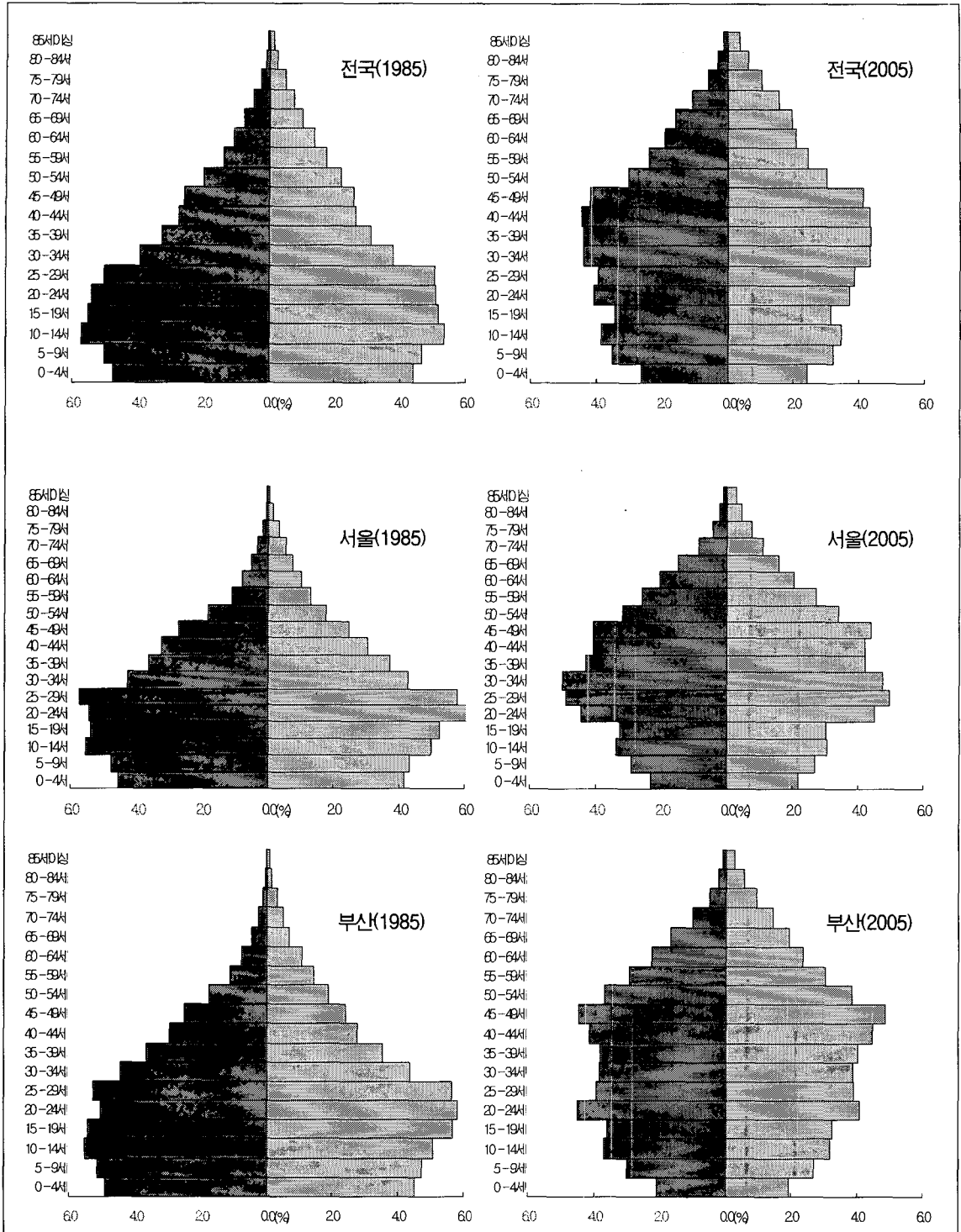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1995		2000		2005		증감률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95~2000	00~2005	95~2005	
부산 광역시	0~14세	835,799	21.9	684,484	18.7	581,853	16.6	-18.1	-15.0	-30.4
	15~24세	753,767	19.8	665,203	18.2	541,749	15.4	-11.7	-18.6	-28.1
	25~34세	674,908	17.7	603,547	16.5	545,935	15.5	-10.6	-9.5	-19.1
	35~44세	668,806	17.6	654,643	17.9	577,091	16.4	-2.1	-11.8	-13.7
	45~54세	434,007	11.4	505,644	13.8	591,668	16.8	16.5	17.0	36.3
	55~64세	269,912	7.1	316,408	8.7	370,315	10.5	17.2	17.0	37.2
	65세 이상	172,389	4.5	225,414	6.2	303,936	8.7	30.8	34.8	76.3
	연령미상	30	0.0	94	0.0	0	0.0	-	-	-
	계	3,809,618	100.0	3,655,437	100.0	3,512,547	100.0	-4.0	-3.9	-7.8
울산 광역시	0~14세	-	-	253,043	25.0	231,322	22.1	-	-8.6	-
	15~24세	-	-	155,602	15.4	143,943	13.8	-	-7.5	-
	25~34세	-	-	190,336	18.8	171,656	16.4	-	-9.8	-
	35~44세	-	-	206,555	20.4	212,410	20.3	-	2.8	-
	45~54세	-	-	111,719	11.0	157,617	15.1	-	41.1	-
	55~64세	-	-	54,009	5.3	72,137	6.9	-	33.6	-
	65세 이상	-	-	40,846	4.0	55,849	5.3	-	36.7	-
	연령미상	-	-	0	0.0	0	0.0	-	-	-
	계	-	-	1,012,110	100.0	1,044,934	100.0	-	3.2	-
경상 남도	0~14세	939,722	24.5	644,440	21.7	609,457	20.0	-31.4	-5.4	-35.1
	15~24세	646,425	16.8	449,387	15.1	393,576	12.9	-30.5	-12.4	-39.1
	25~34세	729,386	19.0	496,898	16.7	462,068	15.2	-31.9	-7.0	-36.6
	35~44세	626,504	16.3	524,105	17.6	539,183	17.7	-16.3	2.9	-13.9
	45~54세	360,875	9.4	334,983	11.3	435,814	14.3	-7.2	30.1	20.8
	55~64세	292,501	7.6	253,483	8.5	271,075	8.9	-13.3	6.9	-7.3
	65세 이상	246,120	6.4	267,459	9.0	329,820	10.8	8.7	23.3	34.0
	연령미상	20	0.0	174	0.0	0	0.0	-	-	-
	계	3,841,553	100.0	2,970,929	100.0	3,040,993	100.0	-22.7	2.4	-20.8
부산 대도시 권	0~14세	1,775,521	23.2	1,581,967	20.7	1,422,632	18.7	-10.9	-10.1	-19.9
	15~24세	1,400,192	18.3	1,270,192	16.6	1,079,268	14.2	-9.3	-15.0	-22.9
	25~34세	1,404,294	18.4	1,290,781	16.9	1,179,659	15.5	-8.1	-8.6	-16.0
	35~44세	1,295,310	16.9	1,385,303	18.1	1,328,684	17.5	6.9	-4.1	2.6
	45~54세	794,882	10.4	952,346	12.5	1,185,099	15.6	19.8	24.4	49.1
	55~64세	562,413	7.4	623,900	8.2	713,527	9.4	10.9	14.4	26.9
	65세 이상	418,509	5.5	533,719	7.0	689,605	9.1	27.5	29.2	64.8
	연령미상	50	0.0	268	0.0	0	0.0	-	-	-
	계	7,651,171	100.0	7,638,476	100.0	7,598,474	100.0	-0.2	-0.5	-0.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주: 연령별 인구는 총인구에서 외국인인 제외한 인구임.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가동(I): 인구구조와 인구가동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그림 1. 전국·서울·부산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1985·2005)

표 5. 부산 대도시권의 내부 인구이동(1996~2005)

(단위: 명, %)

구 분	시도내 인구이동		시도간 인구이동		부산 대도시권 의 인구이동	부산 순이동
	부산	울산·경남	부산→ 울산·경남	울산·경남→ 부산		
1996	545,172 (45.7)	495,923 (41.5)	90,375 (7.6)	62,358 (5.2)	1,193,828 (100.0)	-28,017
1997	510,780 (45.8)	459,316 (41.1)	84,398 (7.6)	61,784 (5.5)	1,116,278 (100.0)	-22,614
1998	471,201 (43.3)	473,063 (42.4)	81,869 (7.3)	62,657 (5.6)	1,088,790 (100.0)	-19,212
1999	514,844 (44.8)	485,089 (43.5)	79,949 (7.2)	69,932 (6.3)	1,149,814 (100.0)	-10,017
2000	466,071 (44.0)	453,067 (40.6)	79,287 (7.1)	62,019 (5.6)	1,060,444 (100.0)	-17,268
2001	474,981 (44.7)	448,430 (40.2)	77,180 (6.9)	61,317 (5.5)	1,061,908 (100.0)	-15,863
2002	464,122 (41.5)	492,809 (44.1)	93,967 (8.4)	67,754 (6.1)	1,118,652 (100.0)	-26,213
2003	481,232 (41.7)	504,647 (45.2)	94,752 (8.5)	74,341 (6.7)	1,154,972 (100.0)	-20,411
2004	407,434 (39.8)	471,545 (42.2)	79,217 (7.1)	66,597 (6.0)	1,024,793 (100.0)	-12,620
2005	422,008 (40.7)	467,406 (41.9)	81,641 (7.3)	65,129 (5.8)	1,036,184 (100.0)	-16,512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로 하는 선택적 인구이동(selective migration)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부산 대도시권의 내부 인구이동

1) 시도내 및 시도간 인구이동

부산 대도시권 내부의 연도별 인구이동 현황을 시도내 인구이동과 시도간 인구이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양재섭·김상일(2007)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1996~2005년까지 10년간을 중심으로 보면, 부산 대도시권은 수도권에 비해 부산·울산·경남 각각의 시도내 인구이동 비율이 높고 시도간 인구이동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기간의 평균 인구이동 비율은 서울 대도시권의 경우 서울내 이동 36.6%, 서울→인천·경기 12.3%, 인천·경기→서울 8.4%인데 비해 부산내 이동은 42.9%이며 부산→울산·경남 7.7%, 울산·경남→부산 6.0%이다. 서울 대도시권에 비해 시도내 인구이동 비율이 높고, 시도간 인구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능적 연계에 의한 대도시권의 통합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996~2005년까지 부산 대도시권 내부의 시도간 인구이동에서 부산의 연평균 전출 인구는 84,264명이며 전입 인구는 65,389명이다. 10년간 부산 대도

표 6. 부산→울산·경남의 구군별 순이동

(단위: 명)

구 분	1996	2006	
	경남	울산	경남
중구	-234	-1	-216
서구	-849	-128	-511
동구	-794	-60	-308
영도구	-1,233	-204	-619
부산진구	-2,663	-359	-889
동래구	-1,335	-53	-485
남구	-1,316	-218	-488
북구	-2,491	-192	-2,293
해운대구	46	307	99
사하구	-1,696	-137	-1,804
금정구	-2,141	20	-154
강서구	-1,411	-23	-571
연제구	-1,461	-144	-608
수영구	-896	-49	-467
사상구	-2,566	-209	-1,482
기장군	-27	-24	-393
계	-21,067	-1,474	-11,189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2006.

주: 1996년 경남의 순이동에는 광역시 승격 이전의 울산의 순이동 포함.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I): 인구구조와 인구이동

시권 내에서 부산의 순이동은 평균 -18,911명인데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부산의 구군별 인구이동

1996년과 2006년 부산과 울산·경남 지역 사이의 순이동을 부산의 구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부산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남으로 전출 초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1996년에는 부산진구(-2,663명), 사상구(-2,566명), 북구(-2,491명) 순으로, 2006년에는 북구(-2,293명), 사하구(-1,804명), 사상구(-1,482명) 순으로 전출 초과 규모가 크다. 또한 부산 대부분의 지역은 울산으로도 전출 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6년에는 부산진구(-359명), 남구(-218명), 사상구(-209명) 순으로 전출 규모가 크다. 1996년에는 해운대구가 유일하게 경남과의 인구이동에 있어서 46명의 전입 초과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에는 해운대구가 울산과 경남으로부터 각각 307명, 99명, 금정구는 울산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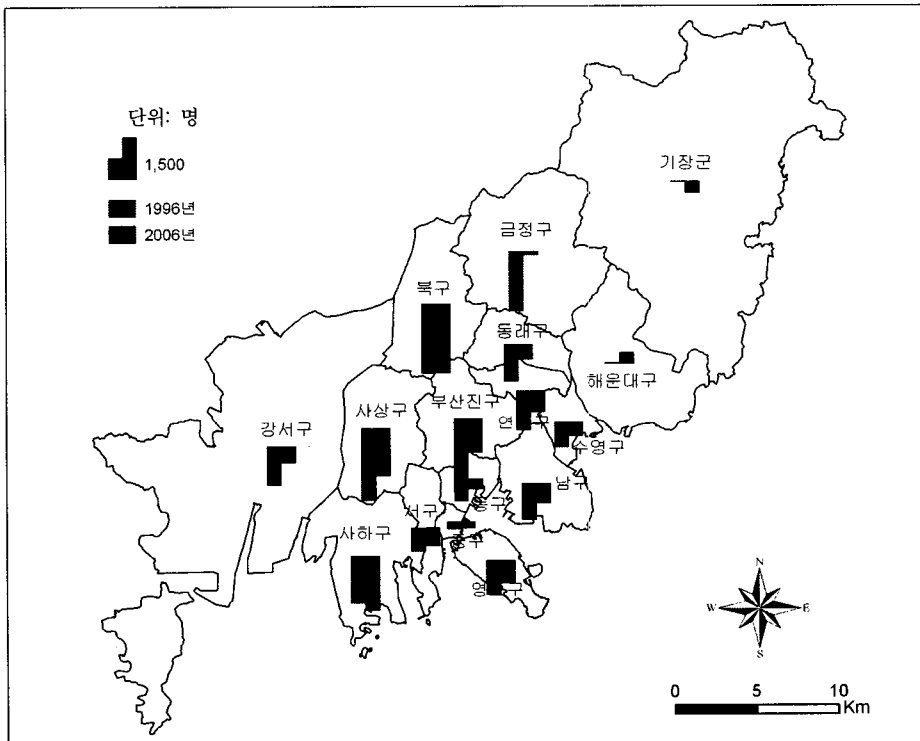
20명의 전입 초과를 보이고 있다.

1996년과 2006년 부산→울산·경남 즉, 부산 대도시권 내부 인구이동의 구군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두 시기 사이에 부산 인구의 울산·경남으로의 유출 규모는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시군구간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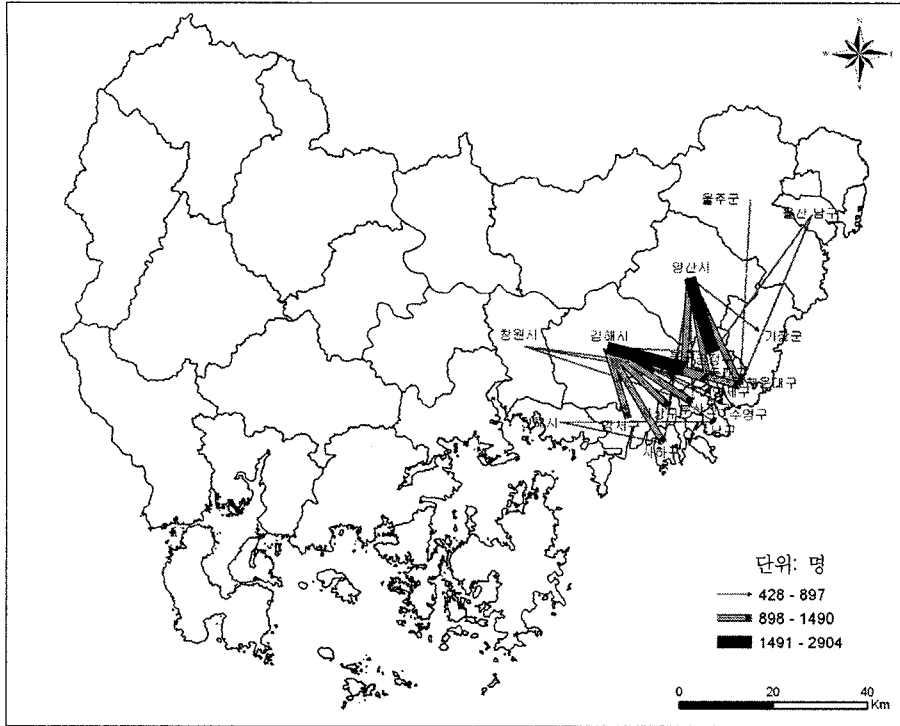
다음으로 2006년의 시군구간 인구이동 흐름의 공간적 패턴을 살펴본 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의 구군들은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거제시, 진해시 등을 제외한 경남의 다른 지역들과는 전입과 전출 모두에서 중요한 인구이동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남·울산→부산의 경우(그림 3). 경남 양산시에서 금정구로 전입하는 인구이동이 2,9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해시→북구, 김해시→부산진구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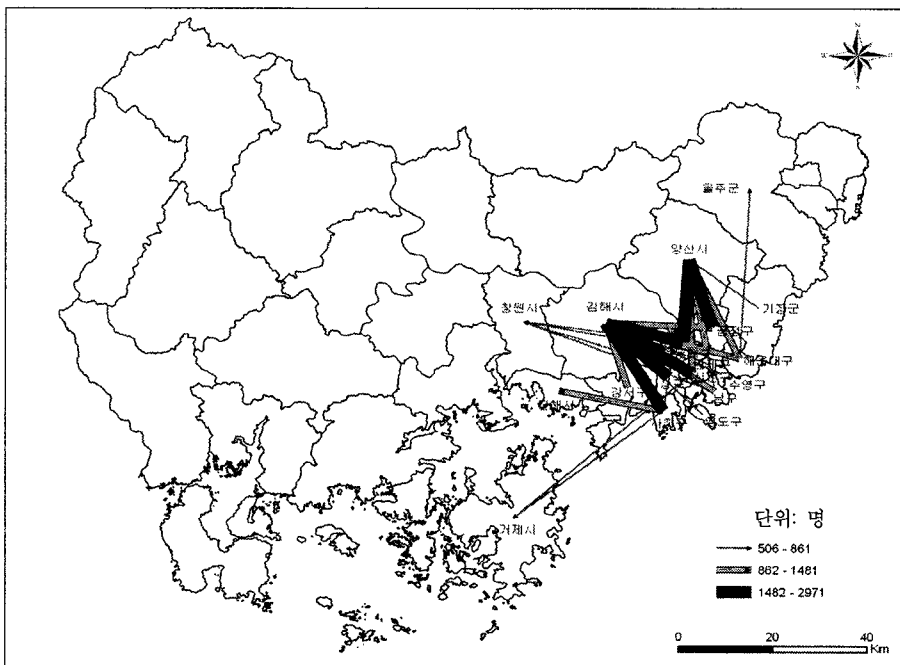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2006.

그림 2. 부산과 울산·경남간 순이동(1996·2006)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6.

그림 3. 경남·울산→부산 시군구간 인구이동 상위 30개 흐름 (2006)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6.

으로 양산시와 김해시에서 전입하는 인구가 많았다. 부산→경남·울산의 경우(그림 4), 북구→경남 김해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2,9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금정구→경남 양산시(2,661명), 북구→경남 양산시(2,143명)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았다.

4. 부산 대도시권과 다른 지역 사이의 인구가동

1) 시도별 및 시도간 인구가동

우선 시도별 순이동을 살펴본 결과 주요 대도시의 인구 감소와 대도시 주변지역의 인구 증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표 7). 서울은 1996~2007년 간 지속적인 인구 유출 지역이었으며, 2007년 인천을 제외한 6개 광역시가 모두 순이동이 (-)로 전출 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전출 초과 규모가 큰 반면 서울과 부산의 주변 지역인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전입 초과 규모가 크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도시의 경계를 초월하여 중심 대도시와 주변 지역이 기능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생활권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최은영 등, 2007).

시도별 순이동은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데, 서울의 전출 초과와 경기도의 전입 초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이후 5대 신도시를 비롯하여 용인, 화성, 동탄, 김포, 파주, 구리 등 서울에서 반경 30~40km권의 경기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이 공급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의 경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2000년 이후 전출 초과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연간 약 4만 명 정도의 전출 초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입 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신규 주택 공급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과 부산의 순이동 변화를 보다 장기 시계열로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서울은 1990년 이후 전출 초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유동적인데 비해, 부산은 1989년 처음으로 전출 초과가 발생한 이후 1990년에서 2007년까지

표 7. 시도별 순이동(1996~2007)

(단위: 명)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울	-211,237	-178,319	-134,013	-81,122	-46,939	-113,949	-106,421	-68,968	-47,204	-51,007	-36,551	-52,883
부산	-47,245	-44,437	-40,921	-33,357	-43,694	-41,1880	-49,442	-42,263	-33,229	-36,975	-34,686	-36,076
대구	-21,740	-14,527	-11,838	-6,867	-3,352	-14,233	-9,641	-3,056	-13,327	-24,950	-25,659	-16,545
인천	12,338	27,040	20,811	1,810	13,165	1,117	230	-16,171	-1,335	10,965	9,618	22,721
광주	90	7,425	2,513	2,853	-14	-121	4,355	-9,687	-3,148	-7,333	-2,730	-4,143
대전	14,918	9,594	12,093	9,609	8,576	6,840	8,555	5,826	2,616	3,210	2,315	-1,048
울산	-	3,838	-5,568	-1,900	3,216	5,988	2,625	1,872	1,764	-392	-2,411	-992
경기	252,669	213,748	122,488	174,134	184,026	248,947	315,782	222,043	188,875	168,851	138,633	113,100
강원	-7,870	-922	8,890	-3,798	-11,134	-8,113	-17,181	-13,063	-8,342	-11,473	-9,560	-6,146
충북	5,624	4,924	5,542	-1,446	-4,404	-8,528	-8,202	-6,081	-5,817	-4,708	1,750	5,692
충남	12,187	14,100	9,365	-2,915	-7,742	-11,628	-13,625	2,682	34,983	4,999	7,055	13,363
전북	-14,371	-14,597	-2,269	-10,449	-21,590	-1,911	-56,735	-3,039	-50,969	-24,477	-19,162	-10,874
전남	-19,522	-21,590	1,237	-24,153	-33,538	-36,424	-46,152	-36,103	-32,252	-20,007	-24,685	-16,573
경북	5,548	-6,215	573	-13,205	-25,706	-21,305	-31,278	-36,833	-26,921	-11,517	-3,319	-14,611
경남	19,704	532	8,567	-9,375	-8,512	-5,166	6,896	4,288	-5,611	5,619	1,294	7,943
제주	-1,093	-594	2,530	181	-2,358	-326	234	-1,447	-83	-805	-1,902	-2,928

유사한 규모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의 전출 초과 규모는 1996년 -211,237명으
로 많은 인구가 유출되었지만 2000년 이후 인구 유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에는 서울

표 8. 서울과 부산의 순이동(1985~2007)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구분	서울	부산
1985	30,364	13,455	1997	-178,319	-44,437
1986	-5,823	31,965	1998	-134,013	-40,921
1987	84,399	31,129	1999	-81,122	-33,357
1988	188,556	23,225	2000	-46,939	-43,694
1989	109,644	-6,658	2001	-113,949	-41,188
1990	-90,992	-35,860	2002	-106,421	-49,442
1991	-36,879	-35,548	2003	-68,968	-42,263
1992	-104,884	-51,995	2004	-47,204	-33,229
1993	-182,632	-58,925	2005	-51,007	-36,975
1994	-236,497	-57,475	2006	-36,551	-34,686
1995	-321,898	-54,909	2007	-52,883	-36,076
1996	-211,237	-47,245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주: 모든 통계는 해당년도 행정구역 경계 기준임.

표 9. 부산 및 서울의 시도간 순이동(1996·2001·2006)

(단위: 명, %)

구분	부산			서울		
	1996	2001	2006	1996	2001	2006
서울	-6,261(13.3)	-12,238(29.7)	-9,752(28.1)	-	-	-
부산	-	-	-	6,261	12,238	9,752
대구	-672(1.4)	-76(0.2)	-75(0.2)	3,038	7,478	6,110
인천	-674(1.4)	-1,033(2.5)	-690(2.0)	-15,547	-6,652	-5,133
광주	-391(0.8)	-238(0.6)	-25(0.1)	2,310	5,898	4,834
대전	-956(2.0)	-707(1.7)	-621(1.8)	-3,213	2,526	2,941
울산	-	-3,710(9.0)	-1,474(4.2)	0	2,164	2,066
경기	-3,954(8.4)	-8,050(19.5)	-6,698(19.3)	-229,906	-179,837	-91,814
강원	-228(0.5)	-273(0.7)	-213(0.6)	1,367	4,369	3,819
충북	-624(1.3)	-308(0.7)	-217(0.6)	-1,331	3,088	1,295
충남	-1,935(4.1)	-534(1.3)	-1,042(3.0)	-418	4,548	1,228
전북	-462(1.0)	-624(1.5)	99(-0.3)	7,534	3,120	7,518
전남	-769(1.6)	-66(0.2)	-17(0.0)	9,730	10,605	7,205
경북	-2,112(4.5)	-739(1.8)	-2,803(8.1)	4,594	8,239	6,828
경남	-28,017(59.3)	-12,153(29.5)	-11,189(32.3)	3,687	7,182	5,927
제주	-190(0.4)	-439(1.1)	31(-0.1)	657	1,085	873
계	-47,245(100.0)	-41,188(100.0)	-34,686(100.0)	-211,237	-113,949	-36,551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표 10. 시도별 서울 대도시권과의 순이동

(단위: 명)

구분	1996			2000			2005			2006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부산	34,565	45,454	-10,889	30,936	53,204	-22,268	32,196	49,583	-17,387	35,009	52,149	-17,140
대구	22,024	26,810	-4,786	20,387	32,250	-11,863	20,438	33,116	-12,678	21,214	33,662	-12,448
광주	24,671	27,829	-3,158	22,764	33,150	-10,386	22,754	34,251	-11,497	25,403	34,819	-9,416
대전	38,835	31,999	6,836	36,183	40,331	-4,148	33,655	38,843	-5,188	35,020	40,476	-5,456
울산	-	-	-	8,757	12,417	-3,660	9,391	13,526	-4,135	10,121	14,008	-3,887
강원	54,966	59,827	-4,861	54,858	64,843	-9,985	52,860	62,982	-10,122	56,533	65,275	-8,742
충북	43,372	39,725	3,647	38,908	44,265	-5,357	38,867	44,474	-5,607	44,830	44,894	-64
충남	67,793	64,858	2,935	63,457	70,850	-7,393	76,708	77,690	-982	78,836	76,379	2,457
전북	44,728	58,507	-13,779	45,902	64,924	-19,022	40,670	60,073	-19,403	44,392	60,191	-15,799
전남	46,965	63,179	-16,214	46,538	67,374	-20,836	39,382	53,305	-13,923	40,178	55,428	-15,250
경북	34,997	43,202	-8,205	31,775	49,314	-17,539	35,311	51,700	-16,389	37,298	51,592	-14,294
경남	40,194	44,780	-4,586	25,577	41,106	-15,529	32,043	42,423	-10,380	33,911	44,162	-10,251
제주	9,764	10,474	-710	10,069	12,335	-2,266	11,437	12,555	-1,118	11,995	13,405	-1,410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과 부산이 비슷한 규모의 전출 초과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인구 규모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유출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산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의 인구가 어디로 유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과 각 시도의 순이동 및 부산의 전체 순이동 대비 시도별 순이동 인구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부산과의 비교를 위해 서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부산의 경우 1996년과 2001년에는 모든 시도로, 2006년에는 미미한 전입 초과를 보인 제주(31명)와 전북(99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로 전출 초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1996년에 비해 2001년과 2006년에는 경남으로의 전출 초과 규모가 감소한 반면, 서울과 경기도로의 전출 초과 규모는 대체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순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남은 1996년 59.3%에서 2006년 32.3%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에 서울은 13.3%에서 28.1%로, 경기도는 8.4%에서 19.5%로 증가하였다. 이는 부산의 전출 초과에 있어서 서울 대도시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산과는 달리 서울의 경우 대규모의 전출 초과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

과의 인구이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순전입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이동에 있어서의 서울의 영향력과 서울-지방간의 지역격차는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도별로 서울 대도시권과의 순이동 규모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은데, 연도별로 다소 변화가 있지만 대체로 부산은 서울 대도시권으로의 최대 인구 유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부산의 구군별 인구이동

전입 초과와 전출 초과를 보이는 지역이 연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산의 구군별 순이동의 차이가 부산 내부에서의 인구이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과의 인구이동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전국 시군구간 이동을 전체, 부산내부, 부산외부로 구분하여 부산의 구군별로 순이동을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부산외부는 다시 부산 외부의 시군구 전체와 서울 대도시권의 시군구, 서울의 시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부산의 구군 중 1996년과 2006년 두 시기 모두에서 부산 외부 지역과의 인구이동에서 전입 초과를 보이는 지역은 전혀 없다. 시기별로 구

표 11. 부산의 구군별 인구이동 (1996 · 2006)

(단위: 명)

구 분	1996					2006				
	전체	부산 내부	부산 외부			전체	부산 내부	부산 외부		
			전체	서울 대도시권	서울			전체	서울 대도시권	서울
중구	-2,946	-2,320	-626	-302	-218	-1,155	-537	-618	-280	-160
서구	-7,102	-4,715	-2,387	-785	-500	-3,440	-1,794	-1,646	-779	-414
동구	-9,160	-7,135	-2,025	-630	-308	-2,859	-1,779	-1,080	-479	-257
영도구	-6,290	-3,569	-2,721	-706	-404	-4,140	-2,466	-1,674	-598	-399
부산진구	-19,826	-13,493	-6,333	-1,635	-958	-5,987	-2,008	-3,979	-2,079	-1,202
동래구	-7,298	-3,696	-3,602	-1,146	-606	2,796	5,058	-2,262	-1,444	-886
남구	-7,871	-3,818	-4,053	-1,216	-662	-5,008	-2,298	-2,710	-1,534	-948
북구	6,498	10,917	-4,419	-695	-355	-6,542	-1,859	-4,683	-1,496	-776
해운대구	38,073	38,917	-844	-181	-10	12,852	14,011	-1,159	-1,509	-863
사하구	2,083	4,485	-2,402	362	-29	-6,121	-2,143	-3,978	-1,612	-905
금정구	-10,586	-5,834	-4,752	-1,085	-653	-1,800	128	-1,928	-1,297	-743
강서구	-2,763	-881	-1,882	-151	-65	-531	290	-821	-195	-91
연제구	-10,625	-7,260	-3,365	-903	-526	-3,504	-1,120	-2,384	-1,233	-686
수영구	-6,627	-3,885	-2,742	-1,032	-719	-1,329	549	-1,878	-1,116	-701
사상구	-3,989	434	-4,423	-733	-196	-7,106	-3,802	-3,304	-1,224	-609
기장군	1,184	1,853	-669	-51	-52	-812	-230	-582	-265	-112
계	-47,245	0	-47,245	-10,889	-6,261	-34,686	0	-34,686	-17,140	-9,752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 · 2006.

체적으로 보면, 1996년 부산 외부로의 전출 초과 규모는 부산진구(-6,333명)·금정구(-4,752명)·사상구(-4,423명) 순으로 컸으며, 모든 구에서 전출 초과가 발생하였다. 부산의 구군 사이의 부산내부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해운대구(38,917명), 북구(10,917명) 그 외 사하구, 사상구, 기장군이 전입 초과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진구(-13,493명), 연제구(-7,260명) 외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에서 전출 초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부산 외부·내부를 합한 전체 순이동에서는 신시가지가 들어선 해운대구의 전입 초과 규모가 가장 큰데, 부산 외부지역과의 순이동은 (-)를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이 부산의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끌어들이 부산 이외 지역으로의 전출 초과를 상쇄시킴으로써 인구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역시 부산 외부 지역과의 인구이동에서는

모든 구에서 전출 초과가 나타났으며, 북구(-4,683명), 부산진구(-3,979명), 사하구(-3,978명) 순으로 그 규모가 컸다. 부산 내부에서의 순이동을 살펴보면 해운대구(14,011명)와 동래구(5,058명)에서는 전입 초과 규모가, 사상구(-3,802)에서는 전출 초과 규모가 컸다. 전체 순이동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해운대구가 12,852명으로 전입 초과 규모가, 사상구가 -7,106명으로 전출 초과 규모가 가장 컸다.

부산의 전체 전출 초과 규모는 1996년 -47,245명, 2001년 -41,188명, 2006년 -34,686명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나, 이 중 서울 대도시권으로의 전출 초과 규모는 1996년 -10,889명, 2001년 -21,321명, 2006년 -17,140명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1년과 2006년에는 전체 인구 유출의 절반가량이 서울 대도시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대도시권으로의 전출 초과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1996년에는 부산진구(-1,635명), 남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I): 인구구조와 인구이동

구(-1,216명), 동래구(-1,146명) 순이었으나, 2001년에는 해운대구(-2,335명), 부산진구(-2,273명), 사하구(-2,237명), 2006년은 부산진구(-2,079명) 사하구(-1,612명), 남구(-1,534명) 순으로 나타났다. 1996년과 2006년 서울 대도시권으로의 구군별 순이동 규모를 비교해 보면 전 지역에서 대부분 인구 유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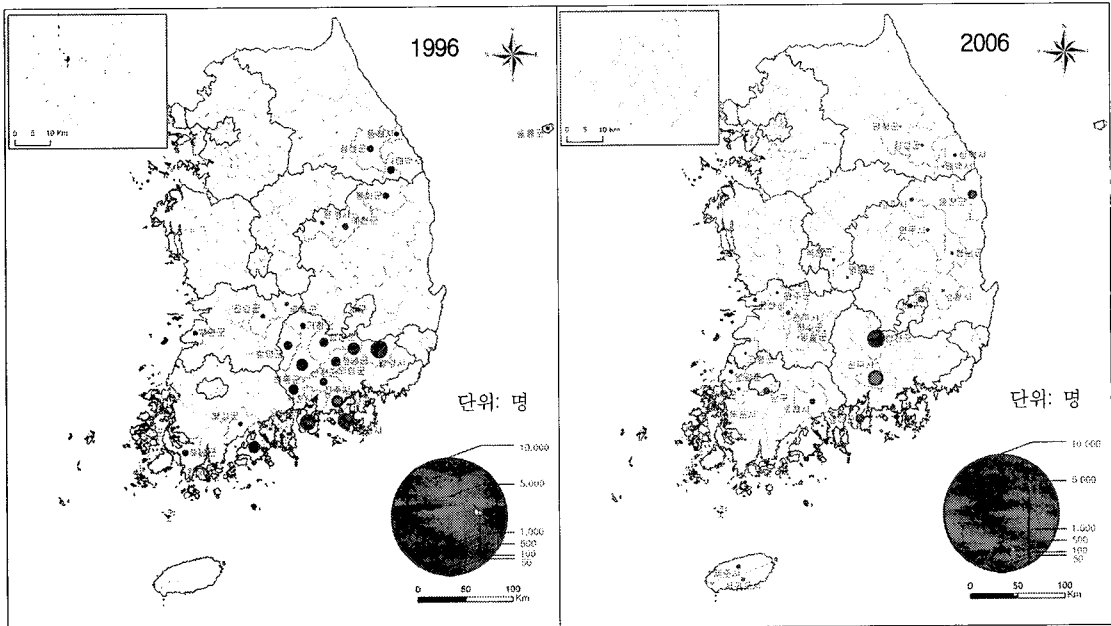
서울 대도시권으로의 이동 중 서울로의 유출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서울 대도시권으로의 순이동 -17,140명 중 서울로의 순이동이 -9,752명으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56%가량 된다. 경기도와 서울의 인구규모에 비해 서울로 이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1996년에는 부산진구(-958명)가 서울로의 전출 초과가 가장 많았으며, 남구(-662명), 금정구(-653명) 순으로 전출 초과 규모가 크다. 2001년에는 해운대구(-1,284명), 부산진구(-1,275명), 동래구(-1,271명) 순으로, 2006년에는 부산진구(-1,202명), 남구(-948명), 해운대구(-905명) 순으로 전출 초과 규모가 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1996년과 2006년도 사이 서울로의 전출 초과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해운대구와 사하구의 경우 서울로의 전출 초과 규

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3) 부산과 전국 시군구간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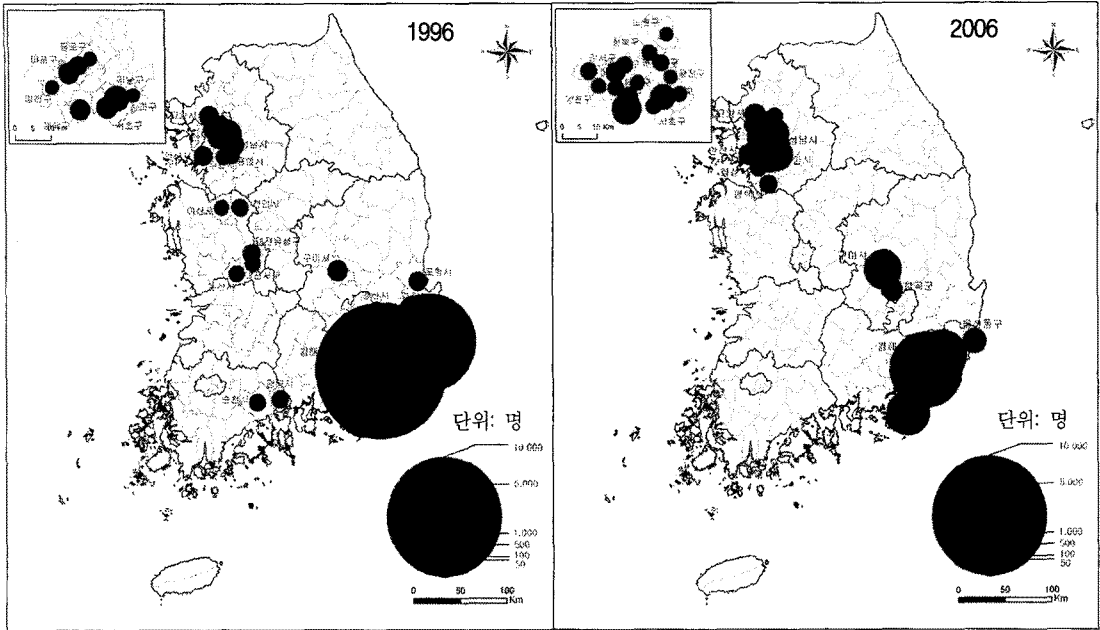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부산과 전국 시군구 사이의 인구이동 현황을 전입·전출 초과 30개 시군구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그림 5, 6). 분석 대상 시군구 수는 1996년은 214개, 2001년은 216개, 2006년은 218개이며 이는 전국 시군구에서 부산의 16개 구군을 제외한 수치이다.

부산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상위 30개 지역이 1996년에는 대부분 부산과 가까운 경남의 중소도시들과 군지역들이었으나, 2006년에는 유입 인구 규모가 줄면서 전국에 산재하는 공간 패턴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인구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는 김해시·울산시·양산시·창원시·거제시 등은 부산과 가까이 입지한 산업이 발달한 도시들이다. 김경수(2000b)에 의하면 부산에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경남 김해시와 경남 양산시는 부산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김해시와 양산시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로 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²⁾ 1996·2001·2006년 3개 연도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2006.

그림 5. 부산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상위 30개 시군구(1996·2006)



자료: 통계청, 인구가동통계, 1996·2006.

그림 6. 부산의 인구가 유출되는 상위 30개 시군구(1996·2006)

1,000명 이상의 전출 초과를 보인 지역은 경남 양산시·거제시·진해시이며, 서울 강남구·서초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고양시·수원시 등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1996년과 2006년 사이 부산의 전출 초과 상위 30개 지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8개(강남구·관악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송파구·종로구·양천구) 지역에서 15개(강남구·강서·관악구·광진구·노원구·동대문구·동작구·마포구·서대문구·성북구·송파구·서초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 지역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그 외 지역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과거에는 서울의 특정 지역으로 부산의 인구가 유출되었으나 최근에는 서울의 전 지역으로 부산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에 부산의 전출 초과 상위 30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대전·충남(유성구, 천안시, 논산시, 아산시)과 전남(광양시, 순천시)의 지역들은 2001년과 2006년에 모두 순위 안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부산의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의 순이동 규모는 큰 반면, 부산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의 순이동 규모는 작다. 100명 이상이 부산으로 초과 전출한

지역은 1996년 11개 시군(경남 밀양시·남해군·통영시·고성군·창녕군·산청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하동군·의령군·합천군·함양군), 2001년 7개 시군(경남 남해군·진주시·마산시·통영시·창녕군·고성군, 경북 포항시), 2006년 4개 시군(경남 합천군·진주시·남해군, 경북 울진군)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5.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가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구조, 부산 대도시권 내부의 인구가동, 부산 대도시권과 다른 지역 사이의 인구가동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간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가동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여 전국 대비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 및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산 대도시권 인구의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3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청년층 인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45세 이상의 장년 및 고령층 인구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부

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주 생산 연령층인 25~39세 인구 비율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도시의 미래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서울 대도시권에 비해 부산 대도시권은 상대적으로 시도내 인구이동 비율이 높고, 시도간 인구이동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기능적 연계에 의한 대도시권의 통합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도시권 내부 인구이동 흐름의 공간적 패턴을 살펴본 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의 구군들은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거제시, 진해시 등을 제외한 경남의 다른 지역들과는 전입과 전출 모두에서 중요한 인구이동 흐름을 형성하지 않고 있다.

셋째, 대도시권의 중심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주변 지역인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생활권이 통합된 거대 대도시권이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지속적으로 거의 모든 시도로 인구를 빼앗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산에서 서울 대도시권으로의 전출 초과가 갈수록 증가하여 부산의 전출 초과에서 수도권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유출 현상은 부산의 특정 구군에 해당하는 현상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경남 양산시와 거제시·진해시 등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의 부산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한편 서울 강남구·서초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고양시·수원시 등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부산의 인구 감소는 대도시의 광역화라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인구 변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인 서울과 부산은 절대 인구 감소라는 표면적인 현상은 같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인구 유출 규모와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부산의 인구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시기별로 유동적인 서울과 달리 부산은 연간 4만 명 내외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둘째,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끌어들이는 대도시의 영향력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부산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인구 유출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은 대규모의 전출 초과가 발생하는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다. 즉 인구이동에 있어서의 서울의 영향력과 서울-지방간의 지역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셋째, 대도시에서 유출된 인구가 동일 대도시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서울에서 유출된 인구가 주로 동일 권역의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동하는 반면 부산 유출 인구의 절반 정도는 타 권역인 서울 대도시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경남으로의 인구 유출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주

- 1) 인구이동통계와 같은 O-D자료는 소지역 단위로 자료가 구축됨에 따라 레코드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최근의 인구이동통계는 연간 레코드 수가 500만 건 이상인 대용량 자료이다. 이 자료는 기원지, 목적지, 연령, 이동월, 성별, 세대수, 단독세대수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에 의한 인구이동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동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과소추정, 실제로는 이동하지 않았으나 주민등록상 이동 신고만 한 과대추정, 이동시기와 신고시기의 불일치 등의 한계를 가진다.
- 2) 김해시와 양산시는 경남 택지개발지구지정 면적(3,236ha)의 80.5%에 해당하는 2,606ha가 지정되어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시의 1.5배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김해시와 양산시 거주구의 이주 동기는 '직장 및 사업상', '주택 마련'을 위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자연환경 양호', '자녀양육 및 교육' 등도 포함된다(김경수, 2000b).

문헌

- 구동희, 2007, 부산권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2(6), 930-939.
- 권기철, 2006, 부산광역권의 제조업 고용 변동과 인구이동의 관계 및 인구이동의 균형화 효과, 경제연구, 24(3), 97-123.
- 김경수, 2000a, 부산시 내부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_____, 2000b, 부산인접도시 택지개발지 가구이동에 관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김경희, 2007, 최근 부산경제 진단과 전망, 부산발전연구원.

- 김성주 · 이선영, 2006, 부산경제의 광역화 관련 통계지표 발굴 및 분석, 부산발전연구원.
- 김홍관, 2006, GIS를 활용한 부산시공간구조변천에 관한 연구: 인구, 고용, 지가분포를 중심으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9(4), 204-214.
- 남광우 · 이성호 · 최철웅, 2001, 부산시 인구성장의 조정과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6(7), 대한민국토 · 도시계획학회, 257-270.
- 서의택 · 김성일, 1998, 부산시 인구분포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3(2), 대한민국토 · 도시계획학회, 29-49.
- 양재섭 · 김상일, 2007, 서울 대도시권의 주거이동 패턴과 이동 가구 특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옥양련 · 류영달, 1994, 부산시민의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1, 201-220.
- 윤철현 · 박봉진, 2003, 부산시 인구분포패턴의 재편성 과정, 도시행정학보, 16(2), 169-182.
- 이희연, 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법문사.
- 임호 · 김경수 · 주수현 · 오재환 · 주경미, 2006,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한 부산시 정책방향, 부산발전연구원.
- 최은영 · 조순기 · 박영실, 2007, 인구이동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특성 분석,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연구 및 통계를 이용한 현황분석 연구, 통계개발원, 101-177.
- Champion, A. G., 1992, Urban and regional demographic trends in the developed world, *Urban Studies*, 29(3), 461-482.
- Findlay, A., Stockdale, A., Short D., and Findlay, A., 2001, Mobility as a driver of change in rural Britai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7, 1-16.
- Knox, P. L., 1994,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3rd ed.)*,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 Schnell, G. and M. S. Monmonier, 1983, *The Study of Population: Elements, Patterns, Process*,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 Stockdale, A., 2006, The role of a retirement transition in the reproduction of rural area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2, 1-13.
- 교신 : 구동회(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 donghoe@pusan.ac.kr, 전화: 051-510-2657, 팩스: 051-582-8658)
Correspondence : Donghoe Koo(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donghoe@pusan.ac.kr, Tel: +82-51-510-2657, Fax: +82-51-582-8658)
- (접수: 2009.8.27, 수정: 2009.9.25, 채택: 2009.10.20)